전통예술·절기문화로 만나는 초여름의 풍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을 기리고, 전통예술과 절기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풍류의 장이 광주 곳곳에서 펼쳐진다.

6일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 희경루 '무등풍류뎐'

몽룡과 춘향 사랑 이야기부터 '호랑이 뱃속 잔치'까지

판소리·가야금산조 공연, 망종 체험·취타대 행렬 다채

소리꾼 조수황

가야금 연주자 김보람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6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과 희경루 일대에서 토요상설공연과 '2026 무등풍류뎐 in 희경루'를 잇달아 선보인다.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는 아홉 번째 토요상설공연이 열린다. 첫 무대는 가야금 연주자 김보람의 '최옥삼류 가야금산조'다. 해당 산조는 화려한 기교보다 맑고 단아한 선율이 특징으로 꼽힌다.

이날 무대에 나서는 김보람은 성애순, 엄희정, 이정숙에게 사사했으며 제21회 임방울국악제 금상, 제23회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이어 소리꾼 조수황이 판소리 춘향가 만정제를 선보인다.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 이야기 속에 이별과 시련, 절개와 정의의 의미를 담고 있는 판소리의 대표 작품이다.

단가 '사철가'를 시작으로 '사랑가 대목', '쑥대머리 대목' 등을 해설과 함께 들려주며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소리꾼 조수황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수 황정현이 북 반주를 맡는다.

공연에 앞서 오후 2시30분부터는 출연진이 나서 공연 이야기와 악기의 특징을 소개하고 일부 장면을 미리 들려주는 오픈 리허설 '소리 맛보기'가 진행되며, 오후 1시부터는 절기 체험과 농악 공연, 한복 체험, 시민 참여 놀이마당 등 '토·토·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같은 날 희경루에서는 '2026 무등풍류뎐 in 희경루' 4회차 행사 '망종(芒種), 청단풍 : 여름을 여는 바람'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현충일을 맞아 전통예술과 절기문화를 통해 삶과 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망종은 보리를 거두고 모를 심는 시기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다. '거두는 손', '심는 손', '여름을 여는 바람'이라는 이미지로 절기의 의미를 풀어내며 시민들이 전통문화와 세시풍속을 이야기·소리·행렬·공연·체험으로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26 무등풍류뎐 in 희경루 (1회차 정월대보름)

행사에서는 해학적인 전래동화와 국악 장단을 결합한 국악동화구연 '호랑이 뱃속 잔치', 취타대 행렬, 마당공연 '무등산 호랑이가 들려주는 망종(芒種) 이야기'가 이어진다.

또한 시 무형유산 악기장 이춘봉 보유자와 함께하는 '커스터마이징 단소' 제작 체험, 절기골든벨, 삼행시 백일장, 민속놀이 체험,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해설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배동환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현충일에 열리는 이번 행사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전통문화가 지닌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기술로, 예술로…시민 축제로 그려낸 '통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로컬 : 뿌리다' 페스티벌 성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노경수)이 지난달 30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6 인문·예술·테크 페스티벌 '로컬 : 뿌리다'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2021년 '평화'를 주제로 시작해 시대의 질문을 문화로 풀어내는 시민참여형 광장축제로 이어져 왔다.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을 주제로 열렸으며,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을 참여와 소통의 공간으로 꾸몄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로컬 LIVE 드로잉'에는 전문 화가와 웹툰작가, 예술 전공 학생, 시민 가족, 이주민 가족 등 130여 명이 참여해 '통합'을 주제로 공동 창작 퍼포먼스를 펼쳤다. 드로잉이 펼쳐진 광장 곳곳에서는 마칭밴드 퍼레이드가 이어지며 음악과 그림, 시민의 움직임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광장 풍경을 만들어냈다.

특히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 가족도 함께해 통합과 공존의 의미를 더했다.

인문 토크쇼 '로컬 오픈마이크'에서는 영화 '양림동 소녀'를 만든 임영희 작가와 이세진 PD, 박주현 전남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기억이 예술로 기록되고 시민의 공감과 공동의 기억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며 광장의 의미를 되새겼다.

공연 프로그램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불꽃타악쇼와 사자탈춤으로 축제의 막을 연 데 이어 문복주 송원대 교수가 연출한 AI 댄스컬이 무대에 올라 인공지능 기술과 공연예술이 결합된 융복합 공연을 선보였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통합'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노경수 이사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문화로 통합을 상상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민의 광장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해법은?

6일 국립광주과학관 필 사이언스 강연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학 강연이 열린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6일 오후 2시 본관 1층 상상홀에서 제42회 필(Feel) 사이언스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에너지 분야 전문가 정용환 박사를 초청해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구할 에너지는?'을 주제로 진행한다.

'북극곰의 눈물을 닦아주세요'를 부제로,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흥미롭게 소개할 예정이다.

정 박사는 연세대에서 신소재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석좌교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세계 최초 고성능 지르코늄 신소재(HANA)를 개발하고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는 등 에너지 분야 연구를 이끌어왔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300회 이상 과학강연을 진행하며 과학문화 확산에도 힘써왔다. /최명진 기자

'ACC 온라인 극장' 상영기관 모집

영상 17편 무상 지원…10월까지 접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오는 10월30일까지 ACC 창·제작 공연 영상을 상영할 'ACC 온라인 극장'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ACC 온라인 극장'은 전당 창·제작 공연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상영기관에 무상 지원하고, 선정된 기관이 지역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 상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는 융복합 공연, 연극, 어린이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영상 17편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신규 제작된 공연 영상 '어둑시니'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시아와 친구들: 트레저 헌터즈'가 포함돼 더욱 풍성한 라인업을 선보인다.

신청 대상은 영상 상영 시설을 갖춘 문화예술·교육 기관, 작은 영화관 등이다. 지리적 제약 없이 누구나 일상 속에서 ACC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소규모 상영 시설을 보유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김명규 ACC재단 사장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CC 온라인 극장' 상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작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CMYK